

예방접종등록			번호: IV - D - 6					
제 목	국문	국가예방접종등록사업에 대한 보건소의 참여 현황						
	영문	Current Participation Progress of Health Center on the National Immunization Registry(NIR)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건세 ¹⁾ , 이석구 ²⁾ , 이무식 ³⁾ , 신의철 ⁴⁾ , 김영택 ⁵⁾ 1)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국립보건원 방역과						
	영문	Kun-Sei Lee ¹⁾ , Sok-Goo Lee ²⁾ , Moo-Sik Lee ³⁾ , Euichul Shin ⁴⁾ , Young-Taek Kim ⁵⁾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unkuk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4)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5)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분 야	보건관리 전염성질환	발 표 자	이건세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 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 국가예방접종등록사업에 대한 보건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p> <p>2. 연구방법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차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소의 전산화 현황(서버, 인터넷, 프로그램), 예방접종 실시 및 등록 현황, 담당 인력현황, 예방접종전산화 등록사업으로 인한 업무 변화, 예방접종 전산화 등록사업에 대한 인식,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p> <p>3. 연구결과 총 244개 보건소 가운데 169개, 69%의 보건소가 응답하였다. 156개, 94.6% 보건소가 자체 전산화 사업(자체 Server, LAN, 전산프로그램 등)이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방접종전산등록 프로그램에 '불만'은 27.9%, 중간은 43.6%, 만족은 28.5%이었다. 예방접종 자료의 입력을 언제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접종 전'은 7.3%, '접종과 동시'는 23.8%, '접종 후'는 68.9%이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완료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완료율 산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응답에서 '예'는 14.4%, '아니오' 85.6%이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현재의 업무량이 감소하였다는 18.5%, 동일하다는 11.8%, 증가하였다는 69.8%이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으로 '업무처리 시간 절약'은 48.2%, '인원 절감 가능'은 9.8%, '업무 정확성 증가'</p>								

'는 83.0%, '업무 편리성 증가'는 75.8%, '실수 가능성 감소'는 73.8%, '대민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은 79.9%, '민원 대기시간 감소'는 41.8%, '업무량 증가'는 66.5%, '업무 스트레스 증가'는 56.1%, '프로그램은 사용 편리'는 59.5%, '시스템 고장으로 업무 지장'은 73.8%, '속도 느려 업무 지장'은 75.5%, '전산등록사업 도입 잘 적응'은 81.3%가 동의하였다.

4. 고찰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개선이 일부만 이루어지지 있다. 보건소의 예방접종전산등록사업에 대한 참여수준은 과도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 전산화 이전의 업무 형태를 개선, (2) 예방접종 전산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과도기적 단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